



보도 시점

2024. 7. 31.(수) 11:00

8. 1.(목) 조간

배포

2024. 7. 31.(수) 09:00

탄소중립·농촌 활성화 해법 '에너지자립 마을' 논의

- 농촌진흥청, 1일 세종특별자치시 제8회 농촌다움 토론회(포럼) 열어
- 국내외 에너지자립 사례로 우리 농촌 에너지 전환 방안 찾을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8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전략'을 주제로 '제8회 농촌다움 토론회(포럼)'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틀 안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전략, 재생에너지지구(농촌특화지구)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재생 연구 추진 현황 △재생에너지 정책변화와 대응 방안 △에너지 전환 공간계획 수립 사례 △농산촌 에너지자립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농어촌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련 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농촌 활성화로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다.”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함께 주최해 8회째를 맞이한 농촌다움 토론회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중심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붙임. 제8회 농촌다움 토론회(포럼) 개최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윤순덕 (063-238-2611)
		담당자	연구관	김상범 (063-238-262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배경 및 목적

- (배경) 재생에너지지구 등 농촌탄소중립 이슈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3.28)
- (목적) 국내외 에너지자립 사례를 통한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 행사 개요

- (주제) 「농촌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전략」
- (일시·장소) '24. 8. 1. (목) 14:30~17:00,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
- (참석) 정책, 현장, 언론, 산업체, 학계 등 50명 내외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대학, 산업체 등

□ 주요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분)	참석자 소개	사회: 최진아 연구사 (농촌진흥청)
14:35~15:05 (30분)	(발표1)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재생 연구 추진 현황	김상범 연구관 (농촌진흥청)
15:05~15:25 (20분)	(발표2) 재생에너지 정책변화와 대응 방안	김강원 박사 (한국에너지공단)
15:25~15:45 (20분)	(발표3) 에너지 전환 공간계획 수립 사례	왕광익 소장 (코비즈(주))
15:45~16:05 (20분)	(발표4) 농산촌 에너지자립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	강석구 교수 (충남대학교)
16:05~16:20 (15분)	휴식	
16:20~17:00 (40분)	토론 및 질의응답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 (주)에너지와 공간 김운성 대표, 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박사,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자, 농어촌공사	좌장: 이주량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후계획

- 농촌특화지구 연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방안 도출(12월)
- 재생에너지지구 연계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안)